

사례(20) 제일의과[第一醫科] - 이비인후과용 의료기기로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 -

- 동사는 중소 의료기기메이커로서 이비인후과에 특화하여 이에 관련된 모든 기기를 취급하고 있음
- 동사는 의사, 모노즈쿠리 기업 등과 제휴함으로써 개발 니즈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의공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
- 동사는 세계에 없는 기술개발을 추진, 일본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발신을 위해, 가 일층 기술향상과 애프터 서포트에 주력할 각오임

- 4월에 개최된 아시아 최대급 의료기기제조장치·설계에 관한 전시회 「Medtec Japan 2018」, 여기서 개최된 일본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표창하는 제7회 Medtec이노베이션 대상에 제일의과의 안구운동검사장치 「와이보그·글래스(YVOG -Glass)」가 선정됨
- 야마구치대학 의학부와 YOODS(야마구치시), 야마구치사업기술센터와 제휴하여 실시간으로 수평·수직·회전 등 안구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함
- 삼반규관에 이상이 발생, 난청이나 이명, 현기증 등을 유발하는 메니에르병(Meniere's disease)의 진단에도 관련됨

□ 메니에르병의 진단에

- 메니에르병은 일본 내 환자수 5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정질환 난치병의 일종으로서, 뇌경색 등 여타 질병과 구별하기 어려움
- 검사 소프트웨어인 와이보그는 현기증이 발생할 시, 안구 위치와 회전을 검출함으로써 질병부분을 판별하는데 도움이 됨
- 후술하는 중이가압장치의 개발과 함께, 2대 하야시 마사아키(林 正晃) 사장은 중소 의료메이커에서도 이와 같이 진단과 진료 양쪽에서 질병에 접근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
- 하야시 사장의 부친인 창업자 하야시 시게아키(林 重昭)씨가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기기제조를 의뢰받았던 것이 1953년 창업의 계기였음


- 하야시 사장은 원래 제 2차 세계대전 중 군수용품인 목발이나 휠체어를 만드는 의료관련 기업에서 근무했는데, 전후 군수가 끊임에 따라 이와 같은 의뢰에 대응했던 것임
- 당시는 이비인후과 영역의 메이커는 거의 1개사 독점상태에 있었다고 함
- 제조 1호는 이비인후과용 흡인 및 스프레이 장치 등이 부착된 진찰 유니트. 1957년부터는 사명에 연관된 「First」라고 하는 브랜드 명으로 전국 판매를 시작함

□ 모든 기기를 취급

- 동사의 큰 특징은 이비인후과에 특화하여 이에 관련된 모든 기기를 취급하는 점임
- 이비인후과는 귀, 코, 목, 현기증 등이 대상영역임. 각각의 진찰, 검사, 치료, 처치, 수술에 대응한 검사관련 대형기기부터 겹자와 같은 소형기기 및 복지기기까지도 폭 넓은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해왔음
- 1968년부터 조립제조소를 자사내에 설치했는데, 외부기업에 대한 제조위탁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
- 의료현장의 여러 니즈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, 60년 이상에 걸쳐 구축해왔던 대학 및 모노즈쿠리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
- 하야시 시장은 제1종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의 허가를 가진 법적책임자로서의 동사와, 의사, 모노즈쿠리 기업 등 3자가 제휴함으로써 개발 니즈의 발굴을 시작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의공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
- 오랫동안 본사를 둔 도쿄도 분쿄구에는 의료관련 기업과 교육기관도 집적되어 있음
- 동경대학과 준텐도(順天堂)대학은 물론, 지방현지 소·중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시하고 있음
- 어린이용 의료기기 전시회에도 참가.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할 목적에서임

□ 세계에 없는 기술개발에 도전

- 앞으로는 가일층의 기술향상과 애프터 서포트에도 주력할 각오임

- 본사 근처에는 「ENT+(이엔티플러스)」로 불리는 쇼룸을 개설하고 있음. 여기에서는 동사의 최신기기제품을 체험할 수 있고 가상현실(VR)을 사용하여 3D시뮬레이션으로 원내 레이아웃 공간을 체감할 수 있음
- 하야시 사장은 의사와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정보발신거점으로서 의료발전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
- 메니에르병에 관해서는, 앞으로도 연구·개발을 계속할 방침임
 - 도야마대학과 가와니시(河西)의료전기제작소(도쿄도 분쿄구), 하이맥(도야마시), 도야마현신세기(新世紀)산업기구와 제휴,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해왔음
- 이제까지 생활습관의 재검토나 약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, 수술이 선택되었으나, 해외에서는 중이가압치료라고 하는 수술을 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음
 - 그러나 이를 위한 기기는 일본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데다, 고막을 절개할 필요가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과제임
- 동사가 개발한 신형 중이가압장치는 외국산 기기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데다, 고막 절개가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함
 - 동 장치를 사용한 치료에 관해서는 2018년에 준용점수가 적용되어, 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, 이에 의한 치료의 보급이 기대되고 있음
- 동사는 2015년에는 이비인후과(Ear, Nose, Throat)의 첫음절이 지향하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명 「ENT First」를 채택, 해외에서의 브랜드 전개에도 주력하고 있음
 - 세계에 없는 기술개발을 추진, 일본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발신하고 있음. 

【기업정보】

▽소재지=도쿄도 분쿄구 혼고 2-27-16

▽매출액=31억엔(2018년 8월기)

▽사장=하야시 마사아키(林 正晃)

▽홈페이지=www.first-med.co.jp

▽설립=1955년

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』 2018년 11월 16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2416-2/>